기록적 폭우 · 산사태, 사찰 피해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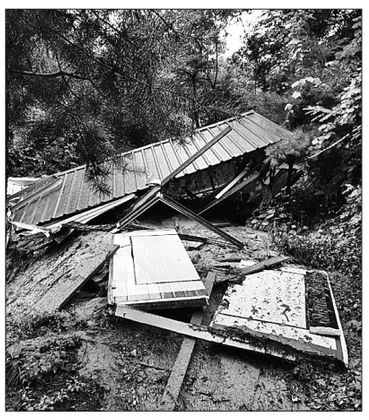
산사태에 토사물 뚫고 들어와… 인명 피해도

연일 폭우가 쏟아지며 충청지역의 인명 및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충청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90㎜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청주에는 15~16일 302.2㎜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1995년 293㎜의 강우량을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집계됐다.

이에 청주 화장사는 산사태로 구법당이 붕괴되며 삼존불이 훼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토사가 공양간과 요사채 지붕을 뚫고 들어와 재산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과 신도들이 나서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그 와중에도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관음사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 16일 오전 10시경 굉음과 함께 사찰입구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다. 또한 법당 옆길에 산사태가 발생하며 토사가 경내로 흘러내렸다. 당시 관음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천안 자비사.

가 위치한 우암산 곳곳은 추가 피해 우려로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다.

천안 쪽도 비 피해에 몸살을 앓았다. 천안 자비사는 산사태로 인해 토사물이 산신각과 공양간을 뚫고 들어왔다. 이 과정서 기도하던 신도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소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아름 기자

전법 능력 향상 승가교육 계속된다

조계종 교육원, 하반기 사업 계획 발표

전법사 제도 시행 본격화
내년 승가대 졸업자 대상
관련 법령 하반기 준비 중

질문 · 토론 수업 안착 위한
교과목, 교수법 연찬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전법과 포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승가교육 정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은 7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한 하반기 교육 사업은 전법과 포교 역량 향상에 맞춰져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법사 제도다. 전법사 제도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비구 · 비구니계를 받는 4급 승가고시 학인들을 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전법포교를 위해 구족계 수계와 더불어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전법사 선발 및 지원에 관한 령'을 제정하고 내년 기본교육기관 졸업자를 첫 대상으로 전법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전법사 제도는 향후 승가고시와 연계해 지속적인 전법 포교 활동을 점검하면서 자격 관리를 이뤄나갈 계획"이라며 "자격 취득 시 주지 인사 고과 등 인센티브제도 반영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설법과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원은 사찰 승가대학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설법과 토론'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규 편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설법과 토론' 교과목의 교안을 마련해 사찰 승가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찰 승가대학 상주 교수를 대상으로 승가교육 현장에서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찬회를 오는 9월 7~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다양한 토론 방식과 이에 대한 교수법 관련 전문가 강의와 실습,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염불의 현대적 계승과 불교식 찬불가 진흥'을 위해 모든 기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시간 특강도 열린다. 최근 불교음악원장으로 위촉된 박범훈(前 중앙대 총장) 원장과 국악합주단이 팀을 이루어 강의와 실습, 공연이 어우러진 찬불가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원은 이를 토대로 2018년도 승려연수 교육에 염불교육과 더불어 찬불가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추진한다.

포교에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원은 '서예' 교과목의 외래 강사 초빙 강의료를 지원한다. 진각 스님은 "사찰에서 포교하다보면 신도들이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휘호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교육기관에서 서예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추진한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9월 중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본 완간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사업은 〈백교회통〉 〈근대한국불교개혁론〉 〈근대한국불교논설집〉 〈경허집〉 〈조선불교사고〉 〈조선탑파의 연구〉 〈근대한국불교시선〉 〈불자필람〉 〈각해일륜〉 〈인명입정리론회석〉 등 총 10권이 발간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묵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임명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사진〉이 어산어장(魚山魚丈)에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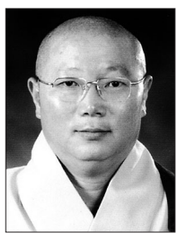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묵 스님에게 어산어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염불원 활성화와 어산 보존 및 전승을 당부했다.

어산어장은 범패와 범음 등 각종 불교의례의식 분야서 최고수준에 도달한 스님을 의미한다. 어산종장 지정 후 20년 이상 또는 어산 분야에서 30년 이상 수학 및 활동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계행이 청정한 승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종단 주요 수륙재 및 영산재 등의 집전을 담당한다.

인묵 스님은 삼학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사미계)했다. 회암사 및 자재암 주지,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의례위원장, 교육원 염불교육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인묵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예능보유자 일응 스님에게 범패를 배웠다. 이후 어산작법학교 초대학교장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불교의례 한글화에도 기여했다.

윤호섭 기자

마곡사 주지후보 원경 스님 추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신임 주지후보로 현 주지 원경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6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관음전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원경 스님을 주지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에 따라 원경 스님은 오는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주지소임을 맡게 된다.

원경 스님은 진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8년 봉선사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범어사 금강계단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3~15대 중앙종회의원과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빛'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환아 18명에 후원금 전달

국내 3명뿐인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최세림(남 · 14) 환아. 면역 체계의 결함과 혈소판 감소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응급실을 찾는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자식의 선천성 난치병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아린 가슴만 쓸어내리며, 매일같이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린다.

최세림 환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불교계가 희망과 자비의 빛을 선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7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청소년독서실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자비나눔 기금 전달식'을 열고, 최세림 환아에게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최세림 환아는 비스코트 올드리치 증후군을 앓고 있다.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가며 잦은 입 · 퇴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엄마와 4남매가 함께 지내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형편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세림이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얼른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최세림 환아의 어머니 조상희 씨에게 직접 손목에 감고 있는 염주를 건네기도 했다.



최세림 환아의 투병 경과를 얘기하던 중 눈물을 쏟은 어머니 조상희 씨에게 자승 스님이 염주를 건네고 있다.

조 씨는 "세림이가 아픈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절에 다니며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기로 결심했다"면서 "무엇보다 자승 스님께서 염주를 주셨을 때 세림이가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세림 환아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 조 씨를 통해 자승 스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4월 23일 개최한 난치병 어린이 지원 콘서트 '더 나눔'을 통해 모연한 기금을 국내 및 라오스 난치병 환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세림 환아 외에도 17명이 1인 최대 800만원 총 9,4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 설법집〉 펴내

군포교지원단 설립 8주년 기념

대불련 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백효흠) 산하 군포교지원단(단장 유선재)은 설립 8주년을 맞아 7월 20일 〈군포교 설법 자료집〉을 펴냈다.

〈군포교 설법 자료집〉은 △불교입문편 △불교교리편 △불자수행편 △불서인용편 △생활불교편 △진로멘토링편 등 6편, 108개 주제로 구성됐다.

자료집은 그동안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 지원단 소속 불자들이 실제 법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활용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 현재 군 복무중인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진로지도와 관련한 사항까지 담겨져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 측은 "자료집은 현장에서 활용돼온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군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불자와 단체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젊은 불자 육성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2009년 7월 군포교지원단을 발족한 이래 현재 전국 20여개 군법당에서 연간 356회에 걸쳐 군 장병에 대한 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